

## 19세기 조선 문인의

### 『해국도지(海國圖志)』 독서 체험과 문학적 형상화\*

- 신필영(申弼永)의 『해국죽지사(海國竹枝詞)』 연구 -

표가령\*\*

- I. 머리말
- II. 『해국죽지사』의 창작 배경과 체제
- III. 동남아시아 국제 정세의 문학적 형상화
- IV. 맺음말

#### <국문초록>

19세기 조선의 문인인 옥파(玉坡) 신필영(申弼永, 1810~1865)은 동시기 청나라의 관료·문인인 위원(魏源, 1794~1857)의 『해국도지(海國圖志)』를 열독(熱讀)하고 그 내용을 총 62수의 죽지사(竹枝詞)인 『해국죽지사(海國竹枝詞)』로 창작하였다. 신필영은 동시대 『해국도지』를 접했던 조선 후기의 소위 실학자, 경세가들이 국외 정세 탐문과 천주교 배격, 해방책(海防策) 강구 등을 위한 목적으로 『해국도지』를 활용했던 것과 달리 아편전쟁 이후 축대발이 된 중국의 현실을 인지하고서 서양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를 문학적 형상화의 소재로 삼았다. 본고에서는 신필영이 『해국도지』를 읽고 『해국죽지사』를 창작한 배경 및 『해국도지』와 『해국죽지사』의 관계를 살핀 후, 조수삼(趙秀三, 1762~1849), 이유원(李裕元, 1814~1888) 등의 해외죽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7088020).

이 논문은 2021년 2월 19일 국문학회 동계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본 논문을 심사해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부 강사

지사와는 달리 국제 정세에 의한 위기감에서 촉발되어 창작되었기에 시의성(時宜性)을 지닌다는 특징에 착안하여 전체 62수 가운데 동남아시아의 국제 정세를 형상화한 일부 작품들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하였다. 신필영은 위원의 『해국도지』 저술 의도를 일부 반영하여 동남아시아 지역들을 분류하고, 싱가포르, 자바섬, 피낭섬 등을 소재로 한 작품에서는 해당 지역에 침윤해 있는 서양 세력의 모습을 생생하게 형상화하되 이들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함께 담아내었다. 또한 조선 문인들에게는 낯선 지역들을 형상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외래어와 같은 낯선 시어를 오히려 작품 속에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해외’라는 이국적인 공간의 이미지를 직관적으로 느끼게끔 유도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핵심어: 신필영(申弼永), 『해국죽지사(海國竹枝詞)』, 위원(魏源), 『해국도지(海國圖志)』, 죽지사(竹枝詞), 해외죽지사(海外竹枝詞)

## 1. 머리말

19세기 조선의 문인인 옥파(玉坡) 신필영(申弼永, 1810~1865)<sup>1)</sup>은 동시 기 청나라의 유명한 관료이자 문인인 위원(魏源, 1794~1857)의 『해국도지(海國圖志)』를 열독(熱讀)하고 그 내용을 총 62수의 죽지사(竹枝詞)로 창작하였다. 『해국도지』에서 제목을 따서 지은 『해국죽지사(海國竹枝詞)』는 아편전쟁 이후 서양 열강과 빈번하게 마찰을 빚고 있던 중국의 현실을 직시하고서 이들 유럽으로서의 서양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의식하에서 지어진

1) 자는 稭良, 호는 玉坡·自怡藥客·怡堂翁·賁園居士 등이며 본관은 平山이다. 申崇謙의 29대 손이며 象村 申欽이 신필영의 10대조가 된다. 조부는 申獻朝(1752~1807)이고 부친은 申孝善(1783~1821)이며 어머니 함중 어씨는 杞園 魚有鳳(1672~1744)의 현손이다. 신필영은 평생을 포의로 살았으며 만년인 1863년에 창릉 참봉에 제수되었다. 신필영의 문집은 『平山申氏文集』 제8권(平山申氏大宗中, 1994)에 수록된 『玉坡集』이 있으며, 성균관대학교 존경자에 필사본 『自怡詩藥』, 『自怡藥』, 『玉坡寓言』 등이 남아 있다. 신필영의 문학에 대해서는 김윤조, 『實學派文學의 繼承樣相에 관한 研究-특히 北學派의 경우를 중심으로』(『大東漢文學』 제8집, 대동한문학회, 1996) 및 표가령, 『玉坡 申弼永의 『涑上紀行絶句』 연구』(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를 참조할 수 있다.

작품이다. 신필영은 동시대 『해국도지』를 접했던 조선 후기의 소위 실학자, 경세가들이 국의 정세 탐문과 천주교 배격, 해방책(海防策) 강구 등을 위한 목적으로 『해국도지』를 활용했던 것과 달리 이를 죽지사, 즉 문학적 형상화의 소재로 삼았다. 신필영이 동시대 문인들과 달리 『해국도지』를 문학적 소재로 활용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가 읽은 『해국도지』는 어떠했으며, 왜 이를 소재로 죽지사라는 양식을 택했는지, 『해국도지』를 얼마나 꼼꼼히 읽고 작품에 반영했는가 하는 것이 본고의 문제의식이다.

해외를 대상으로 삼은 죽지사인 ‘해외죽지사’는 조선 후기 일부 문인들에 의해서도 창작되었다. 지금까지 학계에 소개된 해외죽지서류 가운데 신필영의 『해국죽지사』와 같이 세계지리지 독서 경험을 바탕으로 창작된 작품은 조수삼(趙秀三, 1762~1849)의 『외이죽지사(外夷竹枝詞)』(1795年 作),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의 『이역죽지사(異域竹枝詞)』(1870年 作) 등이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몇 차례의 연구가 이뤄진바, 이 작품들을 통해 작가의 세계 및 타자에 대한 인식이 확장된 점, 조선 문인의 죽지사의 소재가 해외로 확장된 것은 중국의 죽지사 창작 흐름과 동계를 이룬다는 점 등이 밝혀졌고, 특히 조수삼의 『외이죽지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sup>2)</sup>

본고에서 소개할 『해국죽지사』는 조수삼, 이유원의 경우와 달리 작품 창작의 바탕이 되는 세계지리서가 동시대에 출간된 자료라는 점,<sup>3)</sup> 이와 더불어 당시의 국제 정세에 의한 위기감에서 촉발되어 창작되었기에 시의성(時宜性)을 지닌다는 점이 지금까지 알려진 해외죽지사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자 특징이다. 특히 코앞에 닥친 중국의 위기와 서세동점의 사태 등에 대한 내용을

2) 신하운, 「18세기 조선문인의 세계인식과 문학적 형상화: 秋齋 <外夷竹枝詞>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지』 제17집, 중국어문학회, 2005; 김영죽, 「추재(秋齋) 조수삼(趙秀三)의 『외이죽지사(外夷竹枝詞)』 소고」, 『민족문학사연구』 제36호, 민족문학사학회, 2008; 신은경, 「秋齋 趙秀三의 『外夷竹枝詞』 연구」, 『국제어문』 제42집, 국제어문학회, 2008; 김영죽, 「조선 후기 竹枝詞를 통해 본 18, 19세기 중인층 지식인의 他者인식」, 『漢文學報』 제24집, 우리한문화회, 2011; 박혜민, 「조선후기 유럽에 대한 지리적 상상력-〈외이죽지사〉와 〈이역죽지사〉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제49집, 열상고전연구회, 2016. 최근에는 한국 죽지사 자료 집성의 필요성과 그 분류 기준 등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김영죽, 「韓國 竹枝詞 資料 集成의 필요성과 의미-그 방법론을 곁하여」, 『漢文古典研究』 제40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20.

3) 신필영의 경우 『해국도지』가 출간된 지 20년도 채 안 된 상태에서 이를 참고하여 작품화하였던 반면, 조수삼이 『외이죽지사』를 지은 시기(1795)와 그가 참고한 『方輿勝覽』이라는 세계지리서가 출간된 시기(1610)의 시간적 거리는 거의 두 세기에 가깝고, 『이역죽지사』(1870)는 이유원이 참고한 『皇清職貢圖』가 출간된 시기(1761)와 한 세기 정도의 상거가 있다.

죽지사를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신필영의 창작 의도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아직까지 조선 후기의 해외죽지사로서 다뤄지지 못한 신필영의 『해국죽지사』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전체 62수 가운데서도 동시기 해외죽지사들과는 다른 면모를 보이는 당대 국제 정세에 대한 내용을 소재로 한 일부 작품들을 중심으로 우선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해국죽지사』 독해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위원의 『해국도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두 자료의 관계를 밝히고, 구체적인 작품 분석을 통해 『해국죽지사』의 시적 형상화 방식과 그 의의를 밝혀보고자 한다.

## II. 『해국죽지사』의 창작 배경과 체제

죽지사(竹枝詞)는 본래 중국 파촉(巴蜀) 지역 일대에서 유전되던 민가에서 기원한 양식으로, 이곳에 체류했던 문인들에 의해 문자로 기록된 것으로 추정된다.<sup>4)</sup> 특히 초기 파촉 지역에서 가창되던 죽지가(竹枝歌)는 기본적으로 대상에 대한 애절함이 담긴 원망[怨]의 정조를 지니고 있었고, 가사 역시 방언어였다. 당대(唐代)의 시인 유우석(劉禹錫, 772~842)은 이와 같은 민가의 죽지가를 문인시의 양식으로 적극 흡수하였고, 당(唐)·송대(宋代)를 거치면서 죽지사는 문인들 사이에서 한시 양식으로 정착되었다. 남녀 간의 원망·애정이나 토속적인 쇄사(瑣事)를 읊는 데서 나아가 특정 지역의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 일상생활 등으로 음영(吟詠)의 제재가 확장되기도 했으며, 송원(宋元) 이후로는 7언 절구 형식의 단편 소시(小詩)에서 연작으로 작품의 편폭 자체가 확장되기도 하였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죽지사는 강한 지역성을 띠게 되면서 해당 지역의 풍물을 효과적으로 읊는 방식을 고민한 결과 자연스럽게 형식적 차원의 확장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sup>5)</sup> 명대(明代)에 이르면 장편의 죽지사가 출현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전집으로 묶어 출판하기도 하였으며, 또 다른 형식적인 변화로 작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석을 부기하는 현상이

4) 중국 唐代 劉禹錫(772~842)의 『竹枝詞九首』 序引에 민가 竹枝歌의 내용과 풍격, 가창 방식, 악기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보인다.

5) 이렇게 변화하는 창작 경향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元代 楊維禎(1296~1370)의 『西湖竹枝詞』가 있다.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청대(清代)까지 이어져, 청대에는 ‘해외죽지사’라는 죽지사 내부의 새로운 양식이 등장하게 된다. 『명사(明史)』 편수에 참여했던 우동(尤侗, 1618~1704)이 『명사』 「외국전(外國傳)」을 바탕으로 지은 「외국 죽지사(外國竹枝詞)」가 그 모태이다.<sup>6)</sup>

조선 문인들의 죽지사 창작 흐름은 중국과 유사하여, 조선 후기에 이르면 죽지사나 악부풍으로 특정 지역의 풍속 및 인정세태를 사실적이면서 낭만적으로 읊는 한시가 대량 창작되어 뚜렷한 흐름을 이루고 있었다.<sup>7)</sup> 그리고 해외로까지 그 소재가 확장되는데, 특히 외국을 소재로 한 죽지사는 직접 연행(혹은 사행) 체험을 한 후 해당 지역의 풍물을 소재로 작성된 것과 각종 지리서 독서 등 간접 경험을 통해 중국, 일본 이외의 더 넓은 이역(異域)에 대한 정보를 소재로 작성된 것의 두 가지 형태로 확인된다.<sup>8)</sup> 신필영의 「해국죽지사」, 조수삼의 「외이죽지사」, 이유원의 「이역죽지사」는 모두 후자에 속한다.

한편, 신필영은 한강 물길을 따라 동호(東湖) 일대와 양근(楊根), 지평(砥平) 등을 오가며 왕성하게 기행시를 지었고 그 밖에도 경기도 김포, 황해도, 평안도, 금강산 등지를 다니며 다수의 기행시문을 남겼다. 특히 죽지사 계열의 연작 기행시를 다수 창작했는데,<sup>9)</sup> 「양화도절구(楊花渡絕句)」 5수, 「열상기행절구(洑上紀行絕句)」 100수, 「오주십절구(吳州十絕句)」, 평양에서 돌아오는 여행길에 남긴 「서귀기흥(西歸紀興)」 33수 등이 전하며, 전통적인 죽지사의 소재라 할 수 있는 남녀 간의 애정을 노래한 「양류지사(楊柳枝詞)」 10수도 창작한 바 있다. 즉 신필영은 시 창작에 있어 죽지사의 양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다 만년에 『해국도지』를 접하고 「해국죽지사」를 창작함으로써 죽지사의 소재 및 대상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었다고 할 수

6) 이상의 죽지가의 기원 및 문인 죽지사의 史的 전개는 신하윤, 「竹枝詞」 연구를 위한 탐색, 『중어중문학』 제36집, 한국중어중문학회, 2005, 223~241면 참조.

7) 민병수, 『한국한시사』, 태학사, 1996, 383면.

8) 김영죽, 앞의 논문, 2011, 467면.

9) 신필영의 기행시에 보이는 죽지사풍 기속시의 성격에 대해서는 표가령, 앞의 논문, 118~119면 참고. 또한 신필영은 “평생을 물길 따라가길 사랑하니, 菰飯을 먹는 처지에도 아름다운 취미 있다네. 바람이 빠른지 느린지 묻지 마소, 배 정박할 곳에 따르게 되어 있다네(平生愛水行, 菰飯有佳趣, 莫問風疾徐, 當隨舟泊處).”와 같이 뱃길 여행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申弼永, 『玉坡集』 卷1, 『苕溪秋泛集』, 『廣津乘舟』, 『平山申氏文集』 第8集, 平山申氏大宗中, 1994, 740면. 이하에서 『옥파집』을 인용할 경우, 『옥파집』의 권수 뒤에 『평산신씨문집』 제8집의 면수를 표시하였다(예-권3:844).

있다.

『해국도지』는 위원이 제1차 아편전쟁 발발의 책임을 떠맡고 귀양을 가게 된 임칙서(林則徐, 1785~1850)의 부탁을 받아 편찬한 세계지리서이다. 임칙서는 위원에게 서양의 아시아 해양 침투에 대한 경각심을 중국에 일깨워 줄 것을 간청하며 자신이 별도로 정리한 서양에 관한 자료들 및 머레이(Hugh Murray, 1779~1846)가 1834년에 편찬한 『세계지리대전(世界地理大全, *The Encyclopaedia of Geography*)』을 번역한 책인 『사주지(四洲志)』를 주었고,<sup>10)</sup> 위원은 이를 바탕으로 『해국도지』 편찬에 착수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은 『사주지』를 주요 참고자료로 삼아, 각 항목의 맨 처음에 인용하였다.<sup>11)</sup> 위원은 그 밖에도 역대 사서(史書) 및 『직방외기(職方外紀)』, 『매월통기전(每月統紀傳)』, 『무역통지(貿易通志)』 등 서양 선교사들의 저술과 『해국문견록(海國聞見錄)』, 『오문기략(澳門紀略)』 등 지방지 및 지리지들을 대거 활용하여 『해국도지』를 편찬하였다. 『해국도지』 초간본은 1844년에 50권으로 출간되었으며, 이후 위원이 서양에 관한 지도나 지리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계속해서 수정·추가하면서 분량이 늘어나, 1847년에 증보본(增補本) 60권, 1852년에 중간본(重刊本) 100권이 이어서 출간되었다.

『해국도지』가 조선에 처음 전해진 것은 초간본 출간 직후인 1845년 동지부사(冬至副使)로 연행에 참여했던 권대공(權大肯, 1790~?)에 의해서였다.<sup>12)</sup>

10) 임칙서는 아편 단속 업무를 위해 1838년 11월에 欽差大臣으로 임명되어 廣州에 파견되는데, 그는 1839년 3월 광주에 도착한 직후부터 개인 번역국을 만들어 영어에 능통한 중국인들을 고용하여 서양 및 中西 관련 문제를 다루는 서양어 자료를 모아 번역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19세기 초부터 동남아시아의 중국인 사회 및 광둥-마카오 지역에서 활동하던 서양 선교사들이 중국어로 쓴 서양 관련 저서들을 활용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상의 내용은 Leonard, Jane Kate, *Wei Yuan and China's Rediscovery of the Maritime Worl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 91; 97~98면 참조.

11) 『海國圖志』 책1의 서문의 서두에서도 “『海國圖志』五十卷何所學，一舉前兩廣總督林尚書所譯西夷之『四洲志』。”라고 하여 이를 밝히고 있다. 이하 본고에서 인용한 『해국도지』 원문은 道光24년(1844)에 간행된 초간 50권본(20책)으로,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奎中 4540-v.1-20)을 참고하였다. 해당 판본은 1842년에 완성된 초고 50권을 1844년에 20책으로 엮은 古微堂聚珍板本으로 비교적 많이 보급된 선본이다.

12) 許傳, 『性齋集』 권16, 『海國圖志跋』, 한국문집총간 308, 336면. “『國誌』五十篇，漚內閣中書魏源所輯也。咸豐中，洋夷爲患於中國，連年不解。源作計入洋中諸國，采其地方大小、山川險夷、道路遠近、風教善惡、器械精粗，甚悉且詳，乃歸而爲此書，可謂爲天下萬世長遠慮也，非豪傑之士能之乎？史野權尙書大肯以使事至燕京，得此書而還，憲廟聞之，遂命進覽，以御筆題其函而還之。聖人之有意於治者正如是矣。”

박규수(朴珪壽, 1807~1877)는 윤종의(尹宗儀, 1805~1886)의 『벽위신편(關衛新編)』을 읽고 『벽위신편 평어(關衛新編 評語)』를 쓸 당시인 1848년경에 이미 『해국도지』를 읽은 것으로 보이는데, 박규수는 가장 이른 시기에 『해국도지』를 읽은 것이라 할 수 있다.<sup>13)</sup> 이후 홍한주(洪翰周, 1798~1868)는 1866년 음력 1월 22일에 『해국도지』를 빌려와 읽었으며,<sup>14)</sup> 허전(許傳, 1797~1886)은 『해국도지』를 읽은 후 요약본을 만들기도 했다.<sup>15)</sup> 그 밖에 김정희(金正喜, 1786~1856),<sup>16)</sup> 이규경(李圭景, 1788~1856), 최한기(崔漢綺, 1803~1877), 윤종의, 이유원, 김석준(金奭準, 1831~1915)<sup>17)</sup> 등에서 『해국도지』를 읽은 흔적이 확인된다. 특히 허전, 박규수, 김정희, 이규경, 윤종의 등은 어양론(禦洋論),<sup>18)</sup> 해방책, 천주교 등 서양 세력에 대한 대비책이자 경세(經世)의 도구로서 『해국도지』를 활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sup>19)</sup>

그렇다면 신필영은 『해국도지』를 어떻게 입수하고, 왜 이러한 방대한 분량

13) 김명호, 『환재 박규수 연구』, 창비, 2008, 279~294면. 『해국도지』에 앞서 이미 조선에는 1840년에 李正履(1783~1843)에 의해 위원의 『皇朝經世文編』이라는 經世書가 전래되어, 洪奭周(1774~1842), 尹宗儀 등이 이 책에서 전하는 천주교와 海防策에 관한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서양 세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같은 책, 263~266면 참조.

14) 洪翰周, 『丙寅日史』, 卷8뒤, “廿二日壬午晴, … ○致書尹袁善汝, 借『海國圖志』十九冊來. 清宣宗道光壬寅, 邵陽魏源纂輯是書. 書成纔二十五年, 而凡天下四海島夷, 如五天竺, 五俄羅斯, 大小西洋, 南北亞墨尼加, 彌利堅, 日本, 琉球, 安南, 波斯, 扶南, 眞臘, 緬甸, 暹羅, 占城等諸國沿革變易風俗利病, 無不駭載, 蓋史志之淵海也.”

15) 許傳, 앞의 책, 앞의 글. “今觀其書, 蓋有志於禦外者, 不可少此文字矣, 且其中所言異端邪術, 亦有可以明辨而廓闢者, 故略抄其槩, 以資考閱云爾.”

16) 金正喜, 『阮堂全集』 권3·書牘, 『與權彝齋[十八]』, 한국문집총간 301, 59면. “『海國圖志』, 是必需之書, 在我似若他家數寶. 紅舶或有涉境之時, 在重門擊柝之義, 又何可少觀. 胡國審勢者, 有可仿而行之者. 我人每心靡, 不能細看甚可歎. 雖不能盡其船制, 如使帆一術, 足可以仿而行之, 其無一個有心人歟.” 김정희는 이 편지에서 『해국도지』에 보이는 船制 가운데 특히 돛을 다루는 기술은 모방하여 본받을 수 있음에도 조선에서 이를 시행하려는 자가 없음을 한탄하였다.

17) 김석준은 일본의 풍물을 소재로 한 해외죽지사인 『和國竹枝詞』를 남겼고, 『海國謠』라는 글을 지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해국요』는 『해국도지』와 관련된 글로 추정된다. 金奭準, 『孝里齋逸集』, <孝里齋筆記>, 12번째 항목, “近年海禁大開後, 無論儒者縉紳與商客, 易閱覽各國, 然能探其風俗政治以紀山川文物, 他人未遊者覽之, 不出戶知天下者罕矣. 余之曾著『和國竹枝詞』與『海國謠』, 一種書, 雖未及不出戶知天下, 然苟以未遊人覽之, 可得其大槩.” 서한석, 『金奭準과 『孝里齋筆記』에 대하여』, 『漢文學報』 제21집, 우리한문학회, 2009, 485면 참조.

18) 원재연, 『『海國圖志』受容 前後의 禦洋論과 西洋認識』, 李圭景(1788~1856)과 尹宗儀(1805~1886)를 중심으로, 『韓國思想史學』 제17집, 한국사상사학회, 2001.

19) 이광린, 『『海國圖志』의 한국전래와 그 영향』, 『한국개화사연구』(개정 증보판), 일조각, 1982, 2~6면 참조.

의 작품을 남기게 되었는가? 아쉽게도 그가 이를 접하게 된 경로에 대해서는 주변 상황을 바탕으로 추정만 가능할 뿐이다. 신필영은 1860년 음력 8월에 『해국죽지사』를 지었는데, 그는 1860년을 기점으로 1860년대 전후 서울의 주요 시사(詩社)에 참여하여 동인(同人)들과 활발히 문학 활동을 하였다. 남사(南社)의 일원이었던 신필영은 1860년에는 김정희의 아우인 김상희(金相喜, 1794~1863)의 집에서 열린 북사(北社)의 문연(文讌)에 참석하기도 했다.<sup>20)</sup> 그가 평생에 걸쳐 교유했던 인물들이자 ‘同人’이라 칭하며 빈번히 함께 시회에 참석했던 문인들로는 홍우길(洪祐吉, 1809~1890), 홍우건(洪祐健, 1811~1866), 김상현(金尙鉉, 1811~1890), 서유영(徐有英, 1801~1876), 김영작(金永爵, 1802~1868)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과 가까웠던 박규수와도 친분이 있었다.<sup>21)</sup>

한 문인의 인적인 네트워크는 곧 그가 살아온 공간적·지리적 지표라고 할 수 있는바, 이는 그의 사유와 지향에 분명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신필영 역시 당시 서울의 중심에서 진보적 지식인들과의 교유를 통해 이와 같은 책을 입수하고 서세동점의 위기의식을 몸소 느꼈던 것이라 추정된다. 그는 분명 제1, 2차 아편전쟁으로 인해 축대밭이 된 중국의 실정을 파악하고 있었고,<sup>22)</sup> 천하가 어지러운 판국에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조정에 대해 비판적인 의식을 엿보이기도 했으며,<sup>23)</sup> 『해국죽지사』를 쓰게 된 것 역시 당시 세태에 대한 경각심에서 출발한 것이었다.<sup>24)</sup> 하지만 신필영은 동시기 『해국도지』를 국가적 위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활용했던 진보적 지식인들과는

20) 권2:752, 『寓言』(상), 『琴眉宅同人皆集, 邵亭病不至』.邵亭은 金永爵의 호이다. 당시 北社와 南社, 東社의 활발한 교류는 김용태, 『19세기 조선 한시사의 탐색』, 돌베개, 2008, 60~62면 참조.

21) 신필영은 1861년 熱河問安使의 부사로 임명되어 여행을 떠나게 된 박규수에게 장편 송별시를 지어 전송하기도 했다. 신필영이 종유했던 선배 문인으로는 李書九, 金邁淳, 洪周周, 洪吉周, 洪翰周, 尹定鉉 등이 있다. 그는 당대의 명문가에 속하는 威從 魚氏 집안과의 威分 및 豊山 洪氏 집안과의 교분을 통해 19세기의 유명 문인 학자들과 폭넓게 교류할 수 있었다. 신필영의 생애와 교유관계에 대해서는 표가명, 앞의 논문, 6~28면 참조.

22) 권2:767, 『우언』(상), 『寄副使朴桓卿承旨【珪壽】』, “皇帝十載秋, 海寇作封豕. 關津跳烏鬼, 城闕據黑齒. 氛祲迷三輔, 桴鼓動四鄙. 天子下殿走, 翠華慘北指.”; 권2:767, 『우언』(상), 『寄行臺車掌令【三首】』, “天下紛紛戰鼓催, 城頭日夕胡虜魁. 中原時事多難險, 寄語行臺岌得來.”

23) 권2:756, 『우언』(상), 『有感』, “四海風塵日, 三韓宴樂時. 星文方告警, 朝議且循私. 陰雨何曾備, 豐年尙可支. 茫然家國計, 恭室獨題詩.”

24)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본고의 제3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달리 『해국도지』의 인문지리적 성격을 띤 내용을 소재로 삼아 이를 문학의 도구로써 활용했으며, 이는 포의(布衣)의 신분이자 평생을 시인으로 자부한 사람으로서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나 한다.

이어서 『해국죽지사』의 체제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해국죽지사』는 총 62수의 연작시로 모두 55개국을 다루고 있다.<sup>25)</sup> 매 작품 끝에는 해당하는 나라의 이름 혹은 지역의 명칭을 세주(細註)로 표시해 두었는데, 『해국도지』의 해양 구분에 따라 제12수 끝에 “已上東南洋海岸諸國”, 제23수 끝에 “已上西南洋諸國”, 제27수 끝에 “已上小西洋”, 제45수 끝에 “已上大西洋歐羅巴洲”, 제47수 끝에 “已上北洋”, 제62수 끝에 “已上外大西洋墨利加州”라는 세주를 부기하여 모두 여섯 개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sup>26)</sup> 이는 『해국도지』의 권1~2에 수록된 『주해편(籌海篇)』 및 각국의 연혁도(沿革圖)를 제외한 권3~권42까지의 자료회편(資料彙編) 성격의 지리지 부분의 체제를 그대로 참고한 것이다.<sup>27)</sup> 한편, 『해국죽지사』는 조수삼이나 이유원의 해외죽지사와 달리 작품 이해를 돕는 주석이 달려 있지 않다. 『해국죽지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신필영이 참고한 『해국도지』의 해당 권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해국죽지사』		위치	『해국도지』	『해국죽지사』		위치	『해국도지』
1	越南	베트남	권3, 4	35	耶馬里	독일	권29
2	暹羅	태국	권5	36	歐塞特里奧	오스트리아	권30
3	新嘉坡	싱가포르	권6	37	波蘭	폴란드	권30
4	緬甸	미얀마	권7	38	綏林	스웨덴	권30
5	小呂宋	루손섬	권8	39	領墨	덴마크	권31
6	荷蘭大島	보르네오섬	권9	40	瑞國	스위스	권31
7	英荷布路	티모르섬	권9	41	普魯社	프로이센	권32
8	葛留巴島	자바섬	권10	42	北都魯機	북터키	권32

25) 권2:761~764, 『우언』(상), 『海國竹枝詞』. 다만 『옥과집』에는 원제목이 『海國竹枝詞【六十二州并小序】』로 되어있는데 성균관대 존경각 소장 필사본인 『玉坡寓言』(乾)에는 『海國竹枝詞六十二首【并小序】』로 되어있다. 서문에서도 알 수 있듯 총 55개국에 대해 62수로 쓴 것이므로 『옥과우언』의 제목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26) 권2:761, 『우언』(상), 『해국죽지사』, “人魏源在道光時, 纂成『海國圖志』一部, 其曰東南洋海岸諸國十二, 西南洋諸國十一, 小西洋諸國四, 大西洋諸國十四, 北洋二國, 外大西洋十二國.”

27) 신필영은 『해국도지』 초간본인 50권본을 참조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50권본을 기준으로 삼았다. 권43에서 권50까지는 表와 總論 및 附錄에 해당한다.

9	三佛齊島	수마트라섬	권11	43	羅馬泥亞	루마니아	권32
10	美洛居島	말루쿠 제도	권11	44	英吉利	영국	권33~35
11	新埠	말레이시아 피낭	권11	45			
12	日本	일본	권12	이상 大西洋歐羅巴洲			
이상 東南洋海岸諸國				46	俄羅斯	러시아	권36, 37
13	東西中三印度 <sup>28)</sup>	동·남·중 인도	권13	47	甘查	캄차카 반도	권36
14	巴社	이란	권14	이상 北洋			
15	阿丹回	예멘	권14	48	彌利堅	미국	권38
16	如德亞	유대	권15	49	巧里顏達多 里	[미상]	[미상]
17	南都魯機	남티키	권16	50	墨是可	멕시코	권41
18	錫蘭山島	스리랑카	권18	51	北墨利加洲 四國	플로리다, 뉴프랑스, 뉴펀들랜드 등지	권41
19	東印度	동인도	권18	52	北墨利加西 方三國	알래스카 등지	권41
20	南印度	남인도	권18	53	墨利加西北 土蠻	아메리카 서북 원주민 지역	권41
21	西印度	서인도	권18	54	俄羅斯屬地	러시아 소속 영토	권41
22	中印度	중인도	권18	55	北墨利加洲 英吉利屬地	영국령 캐나다	권41
23	北印度	북인도	권18	56	馬蒙勒斯部	[미상]	권41
이상 西南洋諸國				57	南墨利加內 智利	칠레	권42

28) 이는 ‘東南中三印度’의 오류인 듯하다. 제13수 『東西中三印度』를 서술할 때 참고했을 『해국도지』의 해당 기사 제목 아래의 세주 및 『南洋五印度國志』의 서문을 참고하면, 당시 인도는 방위에 따라 동, 서, 남, 북, 중 인도의 다섯 구역으로 나뉘는데, 그 가운데 서인도와 북인도는 각각 독립된 나라였고, 나머지 동인도, 남인도, 중인도는 서양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설명이 보인다. “紇曰: “西南洋爲印度海, 惟西北二印度, 尙各自爲國. 其中南東三印度, 並據於西洋.”(『해국도지』 책6, 권13, 『西南洋五印度國志』, 장1앞); “東南中三印度, 今皆屬英吉利. 惟西北二印度, 各自爲國.”(『해국도지』 책6, 권13, 『西南洋』, 『三印度國』, 장1앞)

24	小西洋利未亞洲	아프리카 대륙	권20	58	字露	페루	권42
25	東利未加伊揖	이집트	권20	59			
26	邁司尼	에티오피아	권20	60			
27	亞大臘	아틀라스 산	권20	61			
이상 小西洋				62	伯西爾	멕시코	권42
28	布路亞	포르투갈	권25	이상 外大西洋墨利加州			
29	大呂宋	스페인	권26				
30	佛蘭西	프랑스	권27				
31	意大里	이탈리아	권28				
32							
33							
34							

이상과 같이 『해국죽지사』의 전체 구성은 『해국도지』의 체제를 따르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잡절(雜絶) 형식과 마찬가지로 『해국죽지사』에 속한 62수의 절구는 각각 개별적으로 독립된 작품이며, 전반적으로 작가가 담고 싶은 지역별 특징을 위주로 하여 창작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유기성은 다소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일부 국가의 경우 두 수 이상 지은 경우도 확인되는데, 예를 들어 이탈리아, 영국, 페루는 각각 4수, 2수, 4수씩 할애하여 작품화하고 있다. 이탈리아를 다룬 작품들을 살펴보면 교황과 천주교, 마테오 리치와 아담 샬, 『해국도지』에 인용된 『직방외기』에 소개된 코르시카 섬의 유명한 투견과 아르키메데스의 거울, 병을 치료하는 골짜기에 관한 내용 등을 요약해두었으며, 페루에 대한 작품들 역시 『직방외기』에 언급된 페루의 풍습, 특산품, 지형, 언어 등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영국을 대상으로 한 작품들의 경우 붉은 머리카락에 푸른 눈을 가진 그들의 외모와 석가, 노자와는 다른 예수라는 인물에 대한 호기심<sup>29)</sup>, 영국의 특이한 지형 및 영국에서 사용하는 도량형, 대량의 책을 보관한 도서관 등에 대한 내용<sup>30)</sup>을 나열하여 앞서 이탈리아,

29) 권2:763, 『우언』(상), 『해국죽지사』, 제44수, “紅毛碧眼使人慳, 十字架頭死亦甘. 何物耶蘇生得異, 教非釋氏道非聃.”

30) 권2:763, 『우언』(상), 『해국죽지사』, 제45수, “一拳礮石碧巉岳, 磅碼新名亦不凡. 聞說藏書十

폐루 등과 같이 작가 자신에게 새롭고 낯선 이국의 정보를 소개하는 데 치중하였다. 이는 위원이 서양 국가들 가운데서도 가장 부강한 영국을 아는 것이 곧 서양을 아는 것이므로 이들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한다는 저술 의도를 명확히 밝히며 『해국도지』 중 세 권(권33~35)이라는 방대한 분량을 할애하여 서술한 것<sup>31)</sup>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따라서 작가가 의도적으로 이들 국가에 대해서 연이어 작품을 남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소재나 내용에서, 그리고 『해국도지』에서 발췌하는 방식에서 다른 작품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분량을 할애하여 소개하고 싶었던 작가의 개인적인 호기심, 흥미에 따른 선택의 결과로 판단된다.

한편, 앞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보르네오섬, 티모르섬 등을 다룬 작품의 경우 해당 국명에 맞는 한자 표기가 아닌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위원이 해당 지역들을 표기한 방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다시 말해 신필영이 보르네오섬을 “荷蘭大島”, 곧 네덜란드[荷蘭]의 큰 섬이라고 표기한 것은, 『해국도지』에서 “네덜란드에 속한 큰 섬[荷蘭所屬大島]”<sup>32)</sup>이라 하여 당시 보르네오섬은 네덜란드가 세력을 확장한 곳임을 표지하기 위해 선택한 표제를 그대로 반영하되 축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표기 방식은 동남양해안제국(東南洋海岸諸國)<sup>33)</sup> 12개국에서만 확인되는 것으로, 본고에서 소개할 당대 국제 정세를 중심 내용으로 한 작품들과 연관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어지는 제3장에서 다뤄보고자 한다.

萬卷，何人啓鍵抽靈函。”

- 31) 『해국도지』 책11, 권24, 「大西洋歐羅巴洲各國總敘」, “自意大里裂爲數國, 教雖存而富強不競, 于是佛郎機、英吉利代興, 而英吉利尤熾, 不務行教而專行賈, 且佐行賈以行兵, 兵賈相資, 遂雄島夷. 人知鴉煙流毒, 爲中國三千年未有之禍, 而不知水戰火器, 爲沿海數萬里必當師之技, 而不知釀兵之厚, 練兵之嚴, 馭兵之紀律, 爲綠營數十萬冗兵對治之藥, 故今志于英夷特詳, 志西洋正所以志英吉利也. 塞其害, 師其長, 彼且爲我富強, 舍其長, 甘其害, 我烏制彼勝敗. 奮之奮之利兮害所隨, 禍兮福所基, 吾聞由余之告秦繆矣. 善師四夷者, 能制四夷, 不善師外夷者, 外夷制之.”
- 32) 『해국도지』 책4, 권9, 東南洋, 「荷蘭所屬[婆羅、浮泥、爪哇]大島[相近之地門島、崙門島附載此內]」.
- 33) 위원은 『해국도지』 권3~권12에 걸쳐 동남양을 海岸諸國과 海島諸國으로 구분하고 베트남, 태국, 미얀마를 ‘해안제국’에 나머지 지역을 ‘해도제국’에 분류하여 서술하였다. 다만 신필영은 해당 지역들을 모두 ‘東南洋海岸諸國’이라 명명하였다.

### III. 동남아시아 국제 정세의 문학적 형상화

『해국죽지사』 62수에는 동남아시아 주변국이 처한 당대의 국제 정세, 해외의 물산과 인물, 각국의 국정(國政), 문화와 민풍, 세계지리 정보 등을 시의 소재로 활용했다는 다양한 특징적인 면모들이 나타나는데, 본고에서는 국제 정세를 소재로 한 작품만을 우선 다루려고 한다. 그 이유는 이들 작품은 지금까지 소개된 조선의 해외죽지사에서는 보지 못했던 동시대 주변국의 상황을 담고 있으며, 해당 작품들은 『해국죽지사』의 나머지 작품들과 달리 동남아시아에 침윤한 서양 세력의 존재에 대한 의식하에 창작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되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신필영은 당시 서양 세력으로 인해 급박하게 돌아가던 해외의 상황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이는 『해국죽지사』 서문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서문을 통해 작품을 창작하게 된 계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한다.

천지사방의 바깥에 대해서는 성인은 말하지 않았으니, 저 바다에 사는 어류나 갑각류와 사대부주(四大部洲: 불교에서 말하는 四大陸)에서 나는 노린내 나는 짐승들에 대해서는 붓을 잡고 쓸 가치도 없었다. 그러나 세대가 이미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풍속이 날로 개명하여, 인간 세상에서 예전에 인적이 통하지 않던 곳이 지금은 통하고, 이전에 무기가 명증하지 못하던 곳을 지금은 명증시킨다. 심지어는 거대한 대포를 실은 거대한 선박을 타고 수억(億) 리나 떨어진 깊은 바다를 건너 중원(中原)을 침범해서 군사를 정비하고 북경을 점거하였으니, 금수의 발자취가 어지럽고 뱀과 멧돼지가 소굴을 만들어 자리 잡은 셈이다. 마침내 『우공(禹貢: 『尙書』의 편명)』에서 말한 9주(洲)의 강역(疆域)과 『주관(周官: 즉 『周禮』)』에서 말한 오복(五服)의 땅이 모두 짓밟히고 더럽혀지는 환란을 당하게 하였다. 백성들의 근심이 이같이 심한 적이 없었으니, 홍수(洪水)와 맹수(猛獸)로 인한 피해보다도 훨씬 더하였다. 이는 진실로 뜻있는 사(士)가 비분강개하며 따져보아야 할 것이니, 어찌 천지사방 밖의 일이라 해서 내버려 둔 채 논(論)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위원(魏源)이라는 자가 도광(道光) 연간에 『해국도지(海國圖志)』 한 부를 찬성(纂成)하였으니, 동남양해안(東南洋海岸) 12국, 서남양(西南洋) 11국, 소서양(小西洋) 4국, 대서양(大西洋) 14국, 북양(北洋) 2국, 외대서양(外大西洋) 12국이라 하였다. 황원(荒遠)한 데서 전해 들은 것인지라 혹 터무니없거나 실상에 맞지 않는 점이 있을지라도 그가 고증하여 모은 것들이 넓고 풍부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한가히 거처하는 틈에 펼쳐보고 읊조려 소시(小詩)를 지어 모두 절구 62수를 얻었으니 그것을 다 모아 『해국죽지사(海國竹枝詞)』라 한다. 위(魏)씨의 책에 견준다면, 어찌 구우일모일 뿐이겠는가. 경신년(1860) 중추, 옥파거사(玉坡居士)가 훈도정사(薰陶精舍)에서 쓰다.<sup>34)</sup>

먼저 신필영은 “친하 이외의 일에 대해 성인은 내버려 두고 논하지 않는다”<sup>35)</sup>라는 『장자(莊子)』의 논리를 가져와 서양<sup>36)</sup> 세력을 어류, 갑각류, 노린내 나는 짐승들이라 폄하하는 방식으로 서두를 개진한다. 하지만 이러한 논조는 급변하여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인적·물적 자원의 왕래가 확장되고 무기가 발달했으며, 이러한 형세를 타고 서양 열강들이 거대한 선박을 타고 중원을 침범하여 북경을 점거하고 있는 급박한 현실에 대한 논의로 주의를 환기한다. 이들로 인한 막심한 피해와 위기를 절감하고는 서두에서 제시했던 『장자』의 입론을 뒤집어 『장자』에서 유래한 유가의 ‘存而不論’의 태도를 폐기하고, 뜻있는 사대부로서 비분강개한 마음으로 이들의 존재에 대해 따져볼 것을 주장함으로써 글의 의도를 명쾌하게 서술하였다.

신필영이 서문에서 『장자』의 논리를 끌어와 이를 전복시킨 서술 방식은 급변하는 해외 정세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자신의 전통적인 지리 인식에 균열을 가한 것으로도 이해된다. 신필영 바로 앞 시대의 유만주(兪萬柱, 1755~

34) 권2761, 『우언』(상), 『해국죽지사』, “六合之外, 聖人不言, 彼海洋鱗介之類, 部洲腥穢之產, 未足以擗筆爲也. 但世代既久, 風氣日闢, 人烟之昔所未通者, 今則通焉, 兵革之前所未加者, 今則加焉, 甚至駕大船載巨礮, 涉層溟萬里之遠, 入犯中土, 整居上都, 蹄跡交亂, 蛇穴穴據, 遂使禹貢九州之域, 『周官』五服之地, 悉遭其蹂躪玷污之患. 生民之禍, 未有若是之烈, 洪水猛獸, 風斯下矣. 此固有志之士扼腕而議之者, 其可以六合之外存而不論哉. 人魏源在道光時, 纂成『海國圖志』一部, 其曰東南洋海岸諸國十二, 西南洋諸國十一, 小西洋諸國四, 大西洋諸國十四, 北洋二國, 外大西洋十二國. 雖荒遠傳聞, 容或有無稽爽實者, 然其考據薈萃, 不得不謂之博且瞻也. 閒居披覽, 吟成小詩, 凡得絕句六十二首, 總之曰『海國竹枝詞』, 較之魏氏之書, 奚特九牛之一毛也. 庚申仲秋玉坡居士題于薰陶精舍.” 번역문의 주석은 필자.

35) 『莊子』內篇, 『齊物論』, “六合之外, 聖人存而不論. 六合之內, 聖人論而不議. 『春秋』經世先王之志, 聖人讓而不辯. 故分也者, 有不分也, 辯也者, 有不辯也.” 陳鼓應 注譯, 『莊子今注今譯』, 中華書局, 2014, 85면.

36) 여기서 ‘서양’은 유럽으로서의 서양을 말한다. 19세기까지도 조선 문인들 가운데 서양을 서역의 일부로 이해하고 있었던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위원은 『해국도지』를 편찬할 당시 당대의 세계지리를 파악하고 있었다. 신필영은 『해국도지』의 체계를 따라 『해국죽지사』를 지었으며, 실제 작품을 통해서도 신필영이 당대 세계 지형도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했음을 알 수 있다.

1788)의 경우, 『흠영(欽英)』에 이돈중(李敦中)이 저술한 세계지리지 『동문광고(同文廣考)』의 『서양기(西洋記)』 부분을 읽고 발췌하여 기록하면서 서양을 불가해한 세계라 언급하며 전통적인 지리 지식 내부로 인식의 한계선을 그었다.<sup>37)</sup> 이에 비교하면 세계에 대한 신필영의 인식의 지평 내지는 세계지리 체계를 이해하려는 자세가 분명히 확장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서문에서 우공 9주의 강역과 오복의 땅이라는 전통적인 중화 문명의 지리 구획을 언급하고 있긴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중화 중심의 지리 체계로서 언급한 것일 뿐이며, 『해국도지』의 체계를 수용하여 이들 지역 하나하나를 작품화하고 있는 그의 서술 태도를 볼 때, 전통적인 지리적 화이의 구분에 대한 인식 역시 변화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신필영은 시대의 변화와 증원을 위협하는 존재들에 대한 날카로운 인식 위에서 이들의 실체를 알고자 하는 지적인 호기심에 추동되어 『해국죽지사』를 지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작품 창작의 문제의식이 실제 작품에 반영되었는가 하는 점은 또 다른 층위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하겠으나, 『해국도지』를 독서한 다른 문인들과는 달리 코앞에 닥친 시대적 문제를 문학 활동의 계기로 삼은 점은 그 자체로 주목할 만하다.

다음으로 본 장에서 살펴볼 동남양해안제국에 속한 작품과 『해국도지』 해당 권수에 표기된 원제목을 함께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해국죽지사』		『해국도지』
제1수	越南	越南
제2수	暹羅	暹羅
제3수	新嘉坡	暹羅東南屬國今爲英吉利新嘉坡沿革(섬라 동남쪽의 속국으로 지금은 영국의 싱가포르가 된 연혁)
제4수	緬甸	緬甸
제5수	小呂宋	呂宋 <sup>38)</sup> 夷所屬島(스페인에 소속된 섬)
제6수	荷蘭大島	荷蘭所屬大島(네덜란드에 소속된 큰 섬)

37) 俞萬柱, 1782.01.27, 『欽英』 제12책, 奎章閣資料總書 『欽英』 4,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7, 193~194면, “觀洋國所記, 則六合之內, 眞無所不有, 有曰: ‘海水可斗, 五嶽自飛’ 吾且應之而已. 蓋不可以常理而論定六合事故也.” 한편 유만주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는 설배환, 『18세기 조선 士人の異域 인식-『欽英』의 『同文廣考』 옮겨 적기를 통한 고찰-』(『한국문화』 제65집,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4, 154~180면) 및 박혜민, 앞의 논문(362~363면)에서 논의된 바 있다.

제7수	英荷布路	英荷布路三夷分屬地間等島(영국, 네덜란드, 포르투갈에 分屬된 티모르(地間, Timor) 등의 섬)
제8수	葛留巴島	英荷二夷所屬葛留巴島(영국과 네덜란드에 소속된 자바섬)
제9수	三佛齊島	英荷二夷所屬亞齊及三佛齊島(영국과 네덜란드에 소속된 아체(Aceh)와 수마트라 팔렘방)
제10수	美洛居島	荷佛二夷所屬美洛居島(네덜란드와 포르투갈에 소속된 말루쿠 제도)
제11수	新埠	英夷所屬新埠島(영국에 소속된 말레이시아 피낭섬)
제12수	日本	日本島附錄

위의 표를 보면 『해국도지』에서는 베트남, 태국, 미얀마,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을 표기할 때 단순히 국명만을 제시하지 않고 해당 지역을 관할 하던 국가를 함께 제시하였다. 신필영은 위의 표에서 굵게 표시한 부분과 같이 『해국도지』에 제시된 제목의 일부만을 각 작품의 세주로 채택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특히 제5수, 제6수, 제7수의 경우에는 『해국도지』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위원이 왜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이러한 표기 방식을 취한 것인지 위원의 동남양 지역 서술 의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다음의 서문 「서동남양(敍東南洋)」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천지의 기운이 명대에 이르러 변한 것인가? 망망대해의 운행이 등근 지구를 따라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 것인가? 지난 시절 천하의 통일과 무관했던, 즉 동진, 남당, 남송, 제, 양은 중국의 한쪽 구석에서 할거했다. 그런데도 보물을 갖다 바치는 섬과 의복, 온갖 화초, 가죽 등을 조공으로 바친 기록들이 역사서에 끊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왕회(王會)도 한 번 열린 적이 없다. **네덜란드는 왜 동쪽으로 상선을 몰아 왔는가? 연안에 이르면 연안을 빼앗고 섬에 다다르면 그 섬을 점령하여 도시와 항구를 만들고 군대를 배치하여 방비하니, 무릇 동남아시아의 요지가 모두 유럽의 도시로 변해버렸다. 땅의 기운과 천지가 변하니, 역사적**

38) 위원이 참고한 일부 서적의 부정확한 기록 때문에 위원은 ‘呂宋’이 스페인의 본명이라 오인하였고, ‘呂宋島’ 혹은 ‘呂宋群島’로 이해한 것은 스페인의 식민지 이후에 그 이름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小呂宋’은 필리핀 마닐라의 별칭이다(淸 魏源撰, 陳華·常紹溫外釋, 『海國圖志』, 岳麓書社, 1998, 489면, 주석 1~3면 참고). 다만 신필영은 이러한 오류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국도지』 권8의 제목인 “呂宋夷所屬島一”에 부기된 위원의 自註인 “原名蠻里刺島, 明季改名小呂宋”이라는 내용 및 해당 권수에 인용된 『明史』, 『海錄』 등의 기록을 보고 이를 취하여 『해국도지』의 세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사실도 세상을 따라 변해 동남아시아에 대한 기록이 실제로는 유럽에 대한 기록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지금은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포르투갈이 동남아시아를 다스리고 있다. 베트남, 태국, 미얀마, 일본은 비록 서양 도적은 아니지만 바다로부터의 침입을 막은, 즉 해방(海防) 사실이 있어 여기에 기록한다. 반면 조선과 오키나와는 해방 사실과 무관하여 언급하지 않는다. 모두 합쳐서 연안국은 세 나라이고, 섬나라는 여섯 나라이다.<sup>39)</sup> (밑줄-인용자)

위 인용문의 밑줄 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위원은 어느 순간부터 상선을 타고 동남양 해안으로 들어와 연안이면 연안, 섬이면 섬 할 것 없이 동남아시아 곳곳에 웅거하며 도시와 항구를 만들고 군대를 배치하여 곳곳을 유럽의 도회처럼 만들고 있는 서양 열강의 모습을 묘사하고 이로 인해 이제는 동남아시아를 기록하는 것이 결국 유럽에 대해 기록하는 꼴이 되었다고 말한다. 베트남, 태국, 미얀마, 일본은 서양 열강으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해방(海防)한 역사적 사실이 있기에 기록하고, 조선과 오키나와는 이와 무관하므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위원의 서술 태도와 실제 『해국도지』의 서술 방식은 신필영이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들을 작품화하면서 서양 열강에 의해 변화된 생활상과 상업 및 교역의 모습을 중점적으로 묘사한 작품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작품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싱가포르를 다룬 시는 다음과 같다.

新嘉坡屬暹羅王	신가과(新嘉坡)는 섬라 왕에 속하였는데
何代暎夷恣陸梁	언젠가 영국 오랑캐들이 멋대로 날뛰었다네.
一自英華書院後	일단 영화서원(英華書院)이 세워진 후로는

39) 『해국도지』 책3, 권3, 『敍東南洋』, 장1뒤~장2앞, “魏源又曰: “天地之氣, 其至明而一變乎. 滄海之運, 隨地變體, 其自西而東乎. 前代無論大一統之世, 卽東晉、南唐、南宋、齊梁, 偏隅割據, 而航琛獻寶之島, 服卉衣皮之貢, 史不絕書, 今無一登于王會. 何爲乎紅夷東駛之舶, 遇岸爭岸, 遇洲據洲, 立城埠, 設兵防, 凡南洋之要津, 已盡爲西洋之都會. 地氣天時變, 則史例亦隨世而變, 志南洋實所以志西洋也. 故今以呂宋、荷蘭、佛郎機、英吉利、布路亞五國, 綱紀南洋, 其越南、暹羅、緬甸、日本四國, 雖未並於洋寇, 亦以事涉洋防者著于篇, 而朝鮮、琉球洋防無涉者不及焉. 凡海岸之國三, 海島之國六.” 원문의 번역은 이민숙 외, 『[原典譯註] 『해국도지(海國圖志)』 권5: 동남아시아에 대한 기록[敍東南洋]』, 『중국소설연구회보』 제101호, 한국중국소설학회, 2017, 4~5면 참조 및 수정.

居然富庶甲南洋

마침내 남양(南洋)에서 가장 풍요로워졌네.

-제3수, 新嘉坡<sup>40)</sup>

위의 시는 싱가포르[新嘉坡]를 표제로 내세우고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말레이시아 반도 서해안의 말라카와 싱가포르를 모두 염두에 두고 쓴 것이다. 위원에 의하면 이 지역은 원래 유불(柔佛, 말레이시아 남부 조호르)과 만랄가(滿刺加, 말레이시아 서부 말라카)의 옛터였고, 명나라 이전에 만랄가는 남양(南洋)의 도회지였으나 영국이 유불에서 무역을 시작했다고 하였다.<sup>41)</sup> 싱가포르의 음역어인 '新嘉坡'라는 명칭은, 1819년 영국 동인도회사의 토머스 래플스 경(Sir Thomas Stamford Bingley Raffles)이 지금의 싱가포르 지역에 상륙하여 조호르(Johor)의 술탄과 계약을 맺고, 싱가포르를 국제무역항으로 개발한 이후부터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 시의 주요 내용은 말라카에 대한 것으로, 이곳이 이전에는 섬라에 복속되었던 곳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영국에 의해 개항된 현재의 말라카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셋째 구의 “영화서원(英華書院)”은 1795년 런던 선교회에 의해 파송된 최초의 중국 선교사인 로버트 모리슨(Robert Morrison, 중국명 馬禮遜, 1782~1834)과 그의 동역자(同役者)인 윌리엄 밀른(William Milne, 중국명 米憐, 1782~1822)이 1818년에 말라카에 개원한 학교로, 한문 학습 및 한문 서적 번역을 위한 곳이었다. 미국인들이 싱가포르에 세웠던 견하서원(堅夏書院)과 더불어 당시 기독교 선교사들이 중국 서적을 출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거점 중 하나였다.<sup>42)</sup> 위원은 자주(自註)<sup>43)</sup>와 『매월통기전(每月統紀傳)』<sup>44)</sup>을 인용

40) 권2:761, 『우언』(상).

41) 『해국도지』 책4, 권6, 東南洋四, 『暹羅東南屬國今爲英吉利新嘉坡沿革三【原無今補】』, 장16뒤~장17앞, “魏源曰: “英夷開闢新嘉坡, 富庶聞於中國, 已數十年, 皆不知爲古時何國. 閱『海錄』及『英夷海圖』, 始知卽柔佛. 滿刺加故墟. 蓋明以前滿刺加爲南洋之都會, 英夷始移其貿易于柔佛.””

42) 영화서원을 설립한 근본적인 동기는 중국인 사역자를 양성해 기독교의 진리를 선양하게 하는 데 있었다. 남경조약 이후 영화서원은 1843년 런던선교회의 남양 선교기지가 홍콩으로 이전함에 따라 홍콩 빅토리아항 해안의 모리슨 힐로 옮겨졌다. 또한, 1811년~1842년 사이에 기독교 선교사들이 제작한 중국어 서적의 중요한 출판지로는 광저우, 말라카, 자카르타, 마카오, 페낭, 싱가포르 등 여섯 곳이 손꼽힌다. 이병길, 『로버트 모리슨』,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4, 152~160면; 췌우전환, 한자어 역, 『지리학의 창으로 보는 중국의 근대: 1815~1911년 중국으로 전파된 서양지리 번역서』, 푸른역사, 2013, 112면 참고.

43) 『해국도지』 책4, 권6, 東南洋四, 『暹羅東南屬國今爲英吉利新嘉坡沿革三【原無今補】』, 장16뒤, “【新嘉坡有堅夏書院, 彌利堅國人所建. 麻六甲有英華書院, 英吉利所建, 皆外夷習學漢文及

한 데서<sup>45)</sup> 영화서원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였고, 신필영 역시 영국에 의해 개항된 말라카의 중요한 랜드마크로서 영화서원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필영은 또한 고유명사인 ‘신가과’, ‘영화서원’을 그대로 시어로 노출하는 과감함을 보였다. 낯선 시어를 사용하여 즉각적으로 이국적인 분위기를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

한편 위원은 같은 글에서 영국이 영화서원을 건설하고 그곳에 중국인을 교사로 영입하여 한문을 가르치게 하고 중국의 경사자집(經史子集), 지도 집 등을 간행하면서 점차 중국의 실정에 대해 훤히 알아가는데도 중국에서는 도리어 그들에 대해 알지 못하고 그들의 장치를 배우려 하지 않음을 개탄하고 있는 반면,<sup>46)</sup> 신필영은 이곳의 변화한 외면에 초점을 맞춰 영화서원으로 인해 ‘풍요로워졌다’고만 묘사하고 있다. 신필영의 이러한 판단은 위원의 인식 수준에 비하면 단순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서문에서 신필영이 제기한 문제의식에 비취볼 때, 실제 작품에 반영된 작가의 국제 정세 인식의 수준이 떨어짐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어서 제8수를 보자.

翻刻漢字書籍之所。故所刻書皆署此兩書院藏板。】”

44) 『매월통기전』은 독일 선교사 귀츨라프(Karl Friedrich August Gützlaff, 1803~1851, 郭實獵)가 간행한 『東西洋考每月統紀傳』(Eastern Western Monthly Magazine)을 말한다. 1833년 8월 1일 광저우에서 창간되었는데 1834년과 1835년 두 차례 중단되었고, 1836년에는 1년간 출간되지 않았다가 1837년 복간된 이후 1838년 말 정간되었다. 초창기 이 잡지의 발간 목적은 광저우와 마카오에 거주하는 외국 거주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잡지는 서양 지리학 분야를 상당히 체계적으로 소개하였는데, 그 수준은 알레니의 『직방외기』를 뛰어넘는다. 19세기 중엽에는 위원의 『해국도지』와 더불어 梁廷相의 『海國圖說』, 徐繼畬의 『瀛環志略』과 같은 세계지리서가 출현하는데, 이 세 저자 모두 『동서양고매월통기전』을 열독했으나, 그 수용의 정도는 각기 달랐다. 그중에서도 위원의 『해국도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썬우전환, 한지은 역, 앞의 책, 113~136면; 愛漢者 等編, 黃時鑾 整理, 『東西洋考每月統紀傳』, 北京: 中華書局, 1997, 27~30면 참고.

45) 『해국도지』 책4, 권6, 東南洋四, 『暹羅東南屬國今爲英吉利新嘉坡沿革三【原無今補】』, 장14앞, “『每月統紀傳』曰: “… 至嘉慶年間, 英吉利以萬古累易之, 于是麻刺甲爲英吉利新藩, 開華英院, 以教唐人與土人, 且義學甚多, 男女不論, 土番漢人皆知讀書.””

46) 『해국도지』 책4, 권6, 東南洋四, 『暹羅東南屬國今爲英吉利新嘉坡沿革三【原無今補】』, 장17앞, “並建英華書院, 延華人爲師, 教漢文漢語, 刊中國經史子集圖經地志, 更無語言文字之隔. 故洞悉中國情形虛實, 而中國反無一人瞭彼情偽, 無一事師彼長技, 嗚矣哉!”

機智陰謀極萬端	기지와 음모는 만 가지에 이르러,
小瓜哇作小荷蘭	소과왜(小瓜哇)를 소하란(小荷蘭)으로 만들더니
往來番舶成都會	오고 가는 외국 무역선으로 도회를 이루었지만
片片鴉烟沁肺肝	조각조각 아편 태우는 연기는 폐와 간에 스며드는구나.

- 제8수, 葛留巴島<sup>47)</sup>

위의 시는 인도네시아의 자바섬(Java Island)에 대한 내용이다. 자바는 ‘葛留巴’<sup>48)</sup> 혹은 ‘小瓜哇’, ‘交留巴’, ‘加留巴’ 등의 명칭으로 불렸다.<sup>49)</sup> 17세기 후반 네덜란드가 이곳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소과왜’가 아닌 ‘小新荷蘭’으로 불리게 되었는데, 이 내용이 바로 2구에서 언급되었다. 네덜란드는 1682년에 자바에 있던 영국인들을 몰아내고 1685년에서 1824년까지 그곳에 머물렀는데, 1824년에 영국과 영란협약(英蘭協約)을 맺어 말라카 해협을 경계로 하여 동남아시아의 영토를 나누어 장악했으며, 네덜란드령 동인도라고 하는 지배체제를 갖추기 시작했다.<sup>50)</sup>

신필영은 먼저 기지와 음모가 가득한 곳으로 자바섬의 이미지를 그리는데, 이는 바로 예전의 소과왜가 아닌 작은 네덜란드, ‘소하란’이 되었기 때문으로 설명한다. 즉, 네덜란드의 기지와 음모가 이곳에 가득하다는 다소 부정적인 어조로 시상을 환기한 후, 외국 무역선들로 인해 변화한 도회처가 된 자바의 이미지를 뒤이어 그린다. 하지만 변영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제4구에서는 사람들의 폐와 간에 스며든 자욱한 아편 연기의 모습을 가져와 변영 속에 감춰진 자바섬의 이면을 묘사했다. 제3구의 내용은 『해국도지』에서 이 시기 자바가 해외 무역선들의 교통의 요지로 부상했음을 설명한 대목들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sup>51)</sup>

47) 권2:761, 『우언』(상).

48) 葛留巴는 Kelapa의 음역이다.

49) 『해국도지』 책5, 권10, 『英荷二夷所屬葛留巴島【有二洲相接, 一下港, 卽古蘭婆, 亦曰訶陵, 一曰葛留巴, 卽小瓜哇也. 一作交留巴, 一作加留巴.】』

50) 밀톤 W. 마이어, 김기태 역, 『동남아시아 입문』, 한국의국어대학교 출판부, 1991, 80면; 유인선, 『인도네시아의 역사와 문화』, 『아세아연구』 제32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89, 128면 참고.

51) 『해국도지』 책5, 권10, 東南洋, 『英荷二夷所屬葛留巴島』, 장3뒤, “陳(倫)炯『海國聞見錄』: “…下港產胡椒, 萬丹另埔頭, 地間產胡椒, 檀香, 而葛刺巴盛甲諸島, 洋船雲集.”; 장5앞, “謝清高『海錄』: “…山縱橫千里, 有城郭炮臺, 南海中一大都會也. 本荷蘭所轄地, 後英吉利師侵而奪之.””;

한편, 이러한 ‘네덜란드의 자바’를 형용하는 다소 비판적인 어조는 위원이 『해국도지』에서 자바를 평가한 내용과 닮아있다. 위원은 자바에 대한 총평<sup>52)</sup> 격으로 “이슬람은 회교(回教)를 가지고서 이들을 신복(信服)하게 하였고 네덜란드는 아편을 가지고서 이들에게 독을 퍼뜨렸으니, 모두 음모가 형체가 없는 가운데 잠복해있다가 남의 국가를 빼앗은 것이다. 기운이 옮겨가는 바와 기지가 미치는 바가 아, 어디까지가 끝이란 말인가?”<sup>53)</sup>라고 하여, 이슬람과 네덜란드에 의해 국가의 주체성을 상실한 자바의 모습과 무형의 것으로 음모와 기지를 발휘하여 이들을 손에 넣은 서양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의식을 드러내었다. 신필영은 위원의 이 말을 이용하여 시 전체를 직조하면서, 외국 무역선으로 인해 번영을 누리게 된 이들 뒤에 감춰진 독, 곧 아편에 찌든 모습을 부각시키면서 한편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에 잠복하기 쉬운 ‘음모’와 ‘기지’를 경계해야 한다는 뜻을 담아낸 것이다. 신필영이 베트남을 다루면서 그들이 서양 배를 따라가 예수를 배우지 않았다고 한 말은 이 지점에서 함께 음미해볼 수 있을 것이다.<sup>54)</sup> 따라서 이 시는 위원의 준열한 비판적 태도에 공감한 위에서 창작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작품은 제11수이다.

小埠新開大海濱  
酒香椒烈摠宜人  
賭場始自乾隆世  
權稅年年千萬銀

작은 부두 큰 바닷가에 새로 열렸는데,  
향긋한 술과 매운 후추가 모두 사람들 마음에 드네.  
도박장은 건륭 때부터 시작되었거늘,  
그 세금이 해마다 은 수천수만 냥이라오.

- 제11수, 新埠<sup>55)</sup>

장8앞, “『海島逸志』曰: “… 地域雄闊, 街衢方廣. 貨物充盈, 百夷聚集之區, 誠一大都會也.””

52) 『해국도지』에서 위원이 각 지역을 정리한 다음, 해당 내용의 마지막 혹은 중간중간에 ‘魏源曰’이라는 자신의 按說을 부기한 부분을 말한다.

53) 『해국도지』 책5, 권10, 東南洋, 『英荷二夷所屬葛留巴島』, 장32앞, “魏源曰: “… 天方之服之也以回教, 荷蘭之蠱之也以鴉煙, 皆陰謀潛伏於無形, 而奪人家國. 氣運所遷, 機智所闕, 烏乎! 安所極哉?””

54) 권2:761, 『우연』(상), 『해국죽지사』, 제1수, “不隨洋舶學耶蘇.”

55) 권2:762, 『우연』(상).

이 시는 말레이시아 피낭섬(Pulau Pinang)에 대한 내용이다. 첫 구에서 큰 바닷가에 새 부두가 열렸다는 것은 이곳 피낭섬이 건륭 연간에 영국에 의해 개항되었다는 정보를 요약한 것이다.<sup>56)</sup> 이 시의 제목이기도 한 ‘新埠’는 곧 피낭섬의 항구 조지타운(George Town)을 가리킨다. 1786년(건륭51) 프란시스 라이트(Francis Light, 1740~1794) 선장은 피낭을 점령한 후 조지타운을 건설하여 영국 동인도회사의 동남아시아 진출 거점으로 삼고자 하였다. 이어지는 2~4구의 내용은 『해국도지』에 인용된 사청고(謝淸高, 1765~1821)의 『해록(海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르면 복건, 광둥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와서 후추를 재배하는 자들이 만여 명인데, 매해 술을 빚고 아편을 팔며 도박장을 연 데에서 은 10여만 냥이 세금으로 걷힌다고 한다.<sup>57)</sup> 신필영은 이상의 간략한 내용을 다시 시로 재구성하여 먼 항구의 부두에서 풍겨오는 술과 매운 후추의 향기라는 후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이국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영국이 이에 부과하는 세금을 10만 냥이 아닌 천만 냥으로 그 수를 부풀려 과장하고 있다. 영국의 개항 덕분에 술, 후추 무역으로 변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건륭 시기부터 운영되던 도박장에 세금을 부과하여 부(富)가 유출되는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신필영은 앞의 자바섬을 다룬 작품에서와같이 비판적인 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필영은 ‘동남양’ 지역을 다룬 작품을 끝으로 뒤이어지는 ‘서남양 제국(西南洋諸國)’의 첫 번째 작품인 제13수에서도 서양 세력의 모습을 중심 소재로 채택하여 담았다. 제13수는 동·남·중인도 전체를 다루고 있는데, 이 시에서는 서양의 식민지로서의 동인도, 남인도, 중인도의 모습에 초점을 맞춰 “배에 가득한 정향(丁香)으로 곱절의 이익을 거두는데, 공반(公班)까지 모두 수천수만 명이라네.”<sup>58)</sup>라고 하여 인도에 진출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모습을 그려내었다. 원문의 공반은 ‘공반아(公班衙)’와 같은 말로 컴퍼니(company)의 음역어이다. 『해국도지』에서는 동인도회사를 치칭

56) 『해국도지』 책5, 권11, 東南洋, 『英夷所屬新埠島【原無今補】』, 장12앞, “謝淸高『海錄』: “新埠, 海中島嶼也, 一名布路檳榔, 又名檳榔土, 英吉利于乾隆年間開闢者。”

57) 위의 책, 같은 곳, “謝淸高『海錄』: “... 閩粵到此種胡椒者萬餘人, 每歲釀酒, 販鴉片, 及開賭場者, 推稅銀十餘萬兩, 然地無別產, 恐難持久也。”

58) 권2:762, 『우연』(상), 『해국죽지사』, 제13수, “滿舶丁香收倍利, 公班兼總萬千員。【東西(南)中三印度】”

하는 명칭으로 사용되었다.<sup>59)</sup> 따라서 신필영은 17세기에 네덜란드가 동인도회사를 설립하여 인도를 거점으로 막대한 무역 흑자를 남긴 상황을 이와 같은 시로 표현한 것이었다. 이후 1811년에 영국이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세력을 누르고 동인도와 중인도 대부분을 영국 소속으로 귀속시켰다는 사실과 1833년 이후에는 공사들의 무역 독점권을 폐지했다는 내용 등 당대의 최신 정보 역시 『해국도지』에 보이지만 이 작품에서는 이러한 최신의 정보를 담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신필영이 『해국도지』를 바탕으로 창작한 동남아시아의 국제정세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들을 살펴보았다. 『해국국지사』를 창작하게 된 계기가 중원을 침략하고 있는 서양 세력들에 대한 위기감이었던 바, 신필영은 이들의 존재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본 장에서 살펴본 동남양 국가들은 신필영 당대에 이미 유럽 열강들의 속국이 되어 있었고, 위원은 이러한 상황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중국의 해방책으로 삼기 위해 다른 지역들에 비해 더욱 상세히 서술했다. 신필영은 이러한 위원의 저술 의도를 일부 반영하여 동남양 지역들을 분류하되, 앞서 살펴왔던 싱가포르, 자바섬, 피낭섬 등의 작품에서는 해당 지역에 침윤해있는 서양 세력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동시에 이들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담아내었다. 특히 신필영은 자바섬과 피낭섬을 형상화하면서 서양 열강으로 인해 변한 동남아시아의 변화한 외면과 부정적인 이면의 모습을 함께 부각시키려 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신필영이 일관된 자세로 위원의 저술 의도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과 서문에서 제시한 자신의 문제의식이 극히 소수의 작품에만 반영되고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서동남양』에서 위원은 동남아시아 국가 가운데 “베트남, 태국, 미얀마, 일본”은 해방(海防)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기록한다는 점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으나, 신필영은 이들 국가를 작품화하면서 『해국도지』에서 다루고 있는 그들의 해방 기록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59) 『貿易通志』에서는 공반아를 회사의 이칭이라고 했지만, 사용 용례를 확인해보면 구체적으로는 ‘公班衙’는 주로 네덜란드 및 프랑스의 동인도회사, ‘公司’는 주로 영국의 동인도회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국도지』 책6, 권13, 西南洋, 『重輯』, 장5앞, “公班衙卽公司之異名也。方荷蘭之立公班衙於南洋, 英吉利商慕之, 於萬曆二十七年, 糾國人合資本, 且稟求國王設立公司, 嚴禁本國散商之赴南洋者。”

다루지 않았다. 베트남을 다룬 시에서 그들이 중화 문명에 교화되어 기독교에 물들지 않았음을 시의 후반부에 담긴 했지만, 『해국도지』에서 언급하고 있는 구체적인 천주교 박해 사례나 서양과의 무역 금지, 서양배가 출몰했을 때 대포를 쏘아 섬멸했던 일 등의 구체적인 기록<sup>60)</sup>에 비하면 다소 추상적이다. 또한 태국에 대한 제2수에서는 메남강(Menam River, 짜오프라야 강)을 따라 벼가 가득 익은 모습과 여기에서 나는 쌀을 복건성으로 실어나르는 모습을 담았고,<sup>61)</sup> 미얀마에 대한 제4수에서는 “나이 일곱이면 삭발하고 출가하여 부처 섬기며, 천문을 배워 책력의 제주 공교로울시고. 크끼리상 앞에 무릎 꿇고 시비를 따지니, 한편 다툼도 없고, 한편 의심도 없네.”<sup>62)</sup>라고 하여 미얀마의 문화와 풍습에 대해 다뤘다는 점에서 ‘해방’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는 무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서 싱가포르를 다룬 작품에서 살펴보았듯이 위원은 영국인들이 중국의 실정을 파악하고자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것과 달리 중국은 그렇지 못함을 개탄했던 반면 신필영은 단순히 그들 덕에 변화하게 된 외양만을 묘사하였다. 이런 점은 『해국죽지사』 서문에서 천명했던 창작 동기가 오히려 상당히 희석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동남양해안제국에 속한 다른 작품들에서도 확인되는데, 보르네오 섬을 다룬 제6수에서 네덜란드가 장악한 현실을 그대로 묘사하되 시의 초점은 정화(鄭和, 1371~1433)의 해양 원정 때 함께 따라가면서부터 그곳에 거주하게 된 중국인들에 대한 가련한 심정을 언급하는 데 그치고 마는 점을 예로 들 수 있다.<sup>63)</sup>

한편, 이상에서 살펴본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시적 형상화 방식은 낯선 시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조선 문인들에게는 낯선 시어를 적극

60) 다음과 같은 기록을 예로 들 수 있다. 『海國圖志』 책3, 권3, 東南洋, 『(越南一)·重輯〔原無今補〕』, 장8뒤, “『澳門紀略』曰: 昔西洋夷, 有以天主教行於安南者, 國人惑之, 國王盡拘其人, 立二轍於郊下, 令曰: “不從教者立赤轍下, 宥其罪; 如守教者立白轍下, 受誅.” 竟無一人肯出教, 立赤轍下者. 王怒, 舉炮殲之. 至今不與西洋通市, 至則發大炮擊之, 西夷卒不敢往.”

61) 권2:761, 『우언』(상), 『해국죽지사』, 제2수, “一谷中能建一邦, 夏天黃水漲成江. 隨波丈苗苗豐熟, 歲歲全閩運米饒.”

62) 권2:761, 『우언』(상), 『해국죽지사』, 제4수, “七齡祝髮事如來, 學得青臺巧曆才. 跪向象前陳曲直, 便無爭訟便無猜.” 이 시는 『해국도지』의 해당 권수에 인용된 저서 중에서도 『新唐書』의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63) 권2:761, 『우언』(상), 『해국죽지사』, 제6수, “千里山青十國環, 荷蘭大島控南蠻. 可憐唐客多流寓, 畊種崎嶇海港間.”

구사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이 시가 해외에 관한 것임을 보다 직관적으로 느끼게끔 하는 것이다. 이는 방언이나 고유명사를 그대로 시어로 사용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부각하는 죽지사 양식 자체의 특징이기도 하다.<sup>64)</sup> 예를 들어 앞서 싱가포르를 뜻하는 ‘신가과’를 시의 첫머리에 놓은 점, 싱가포르의 ‘영화서원’을 시어로 그대로 노출시킨 점, ‘소과왜’, ‘소하란’을 한 구에 함께 나열한 점, 컴퍼니의 음역어인 ‘공반’을 시어로 사용한 점 등이 모두 『해국죽지사』의 독특한 면모인 것이다.

해외죽지사류의 작품들은 낯선 대상 지역에 대한 정보, 사실을 기록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시로서의 서정성은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작가는 여전히 7언 절구라는 시 양식 속에서 대상의 특징을 응축된 시어를 사용하여 전달하고 심상한 어조로 이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생생히 보여줌으로써 낯선 지역에 대한 이미지화를 하는 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후속 연구에서 살펴볼 나머지 『해국죽지사』 작품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시적 형상화의 특징이다.

#### IV. 맺음말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신필영이 『해국도지』를 읽고 『해국죽지사』를 창작한 배경 및 『해국도지』와 『해국죽지사』의 관계를 살피고, 전체 62수 가운데 동남아시아의 국제 정세를 형상화한 작품들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하였다. 『해국죽지사』는 아편전쟁 이후 쇠대밭이 된 중국의 현실을 인지하고서 서양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지어진 작품으로, 당시 조선

64) 몽고어가 그대로 사용되었던 19세기 초의 중국 죽지사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청 嘉慶 연간(1796-1820)의 문인 得頤亭의 『草珠一串(京都竹枝詞百有八首)』에 수록된 시 가운데 북경의 우유차 가게를 소개하는 시에서 몽고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신하운, 『竹枝詞』 연구를 위한 탐색, 『중어중문학』 36, 한국중어중문학회, 2005, 237면 참조.

한편, 조수삼의 『외이죽지사』에 대한 연구에서 조수삼은 타자에 대한 주관적 감상을 극도로 자제하고 대상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세밀한 정보 전달에 주력한바, 낯선 것을 익숙하게 하는 통로로서 죽지사를 활용했을 것이라 지적하였다(김영숙, 앞의 논문, 463~464면). 본고에서는 이에 대해 동의하며, 이를 신필영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시어 선택의 측면에서 확장해 보았다.

에서 『해국도지』를 경세를 위한 도구로 사용했던 당대 지식인들과 달리 이를 문학적으로 승화시켜 경각심을 촉구하고자 했다는 데서 『해국도지』 수용의 방식이 남다른 작품이다. 신필영은 만년까지 포의로 살았던 시인이었던 만큼 경제적인 차원에서 이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에는 신분적 한계가 분명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며, 일종의 대안으로서 자신의 장처인 한시라는 장르를 통해 이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한다.

한편, 본고에서 살펴본 작품들과 같이 당대 국제 정세에 대한 인식에 기반한 작품들은 소재 및 주제적 차원에서 조선 후기에 창작된 해외죽지사류 작품들과 차별된다. 조수삼이나 이유원의 작품에 보이는 해외 각 지역의 낯선 풍물, 역사, 문화, 기후 등의 소재가 본고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해국죽지사』의 다른 작품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반면,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본 ‘시의성’의 측면에서 당대 해외의 정세를 다룬 작품들은 『해국죽지사』에서만 포착되는 독특한 지점이다.

죽지사 양식의 차원에서 『해국죽지사』는 이미 기존의 해외죽지사 연구에서 지적되어 왔듯, 그 역시 우동의 『외국죽지사』를 전범으로 하여 창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해외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을 죽지사라는 양식에 담아내어 온 문학적인 흐름을 신필영 역시 따른 것이라 하겠다. 한편, 해외죽지사라는 이러한 문학 양식이 갖는 의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조선 후기에서부터 이어져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학규(李學逵, 1770~1835)의 경우에는 우동의 작품을 두고 “사실을 서술함만을 취하였기에” 죽지사 장르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평가했지만,<sup>65)</sup> 윤정현(尹定鉉, 1793~1874)은 동일한 해외죽지사 계열인 김석준의 『화국죽지사(和國竹枝詞)』(1865年作)를 평가하기를 ‘시로써 일을 기술하는 뜻’을 파악했다고 고평하였듯 해외죽지사에 대한 상반된 태도가 확인된다.<sup>66)</sup> 지금까지도 해외를 소재로 하여 간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죽지사는 “실제적 체험에서 동떨어진 관념적인 읊조림”<sup>67)</sup>이라는 한계가 지적되는

65) 李學逵, 『洛下生集』 책10, 因樹屋集, 『與(1)』, 한국문집총간 290, 360면. “至如尤展成外國竹枝詞, 惟取叙實, 冀合音節, 則似不當以此例言也.”

66) 金奭準, 『紅藥樓詩初集』(『和國竹枝詞』), 임형택 편, 『閭巷文學叢書』 권5, 2007, 다른생각, 651면. “詩以紀山川、城郭、人物、風俗, 如界畫家、眞境、逸韻難於兼勝, 惟杜文貞『秦州雜詩』, 古今獨絕, 排比聲律摸寫如神, 故曰『杜陵詩卷是圖經』小棠之作, 師其意, 不襲其貌, 能解以詩紀事之旨, 必傳無疑也. 李君鶴船曾賦日本雜事七絕二十首, 多與此可相證明, 詩辭之工, 又相頡頏, 合而讀之, 日本之爲國, 可得其大較矣. 樗溪退叟尹定鉉識.”

만큼 이러한 해외죽지사의 기능과 문학적 효용에 대해서는 뚜렷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신필영의 작품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는 없겠으나 해외죽지사에서 외국의 풍습, 문화 혹은 정세를 기록하는 문제는 해외에 대한 '민속지'라는 성격과 연관 지어 그 사료적인 가치를 밝히고 낯선 곳을 익숙한 한시 양식을 통해 구현해내는 해외죽지사 특유의 성격을 밝힐 필요가 있음을 다시금 환기한다.

이상 본고는 해외죽지사 연구에서 다루이지 못했던 『해국죽지사』라는 자료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었고, 따라서 62수 중에서도 국제 정세를 형상화한 작품만을 특징적으로 뽑아 다뤘기에 『해국죽지사』의 전체상을 짚어내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또한 본고에서 『해국죽지사』의 특징적인 시적 형상화 방식으로 꼽은 낯선 시어의 적극적인 활용은 여타 해외죽지사에서도 종종 발견되는 특성이지만 그간의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지적된 바가 없으며, 이는 이후 『해국죽지사』 전체 작품 및 국내 해외죽지사와의 비교를 바탕으로 한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67) 장효현은 조수삼과 이유원의 해외죽지사를 평가하면서 이러한 한계를 지적하였다. 장효현, 『조선 후기 죽지사 연구』(『한국학보』 제34집, 일지사, 1984), 『韓國 古典文學의 視角』,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0, 89면.

## 참고문헌

### 1. 자료

- 申弼永, 『玉坡集』, 『平山申氏文集』 제8집, 平山申氏大宗中, 1994.  
申弼永, 『玉坡寓言』,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魏 源, 『海國圖志』, 서울대학교 규장각(奎中 4540-v.1-20).  
魏 源 撰, 陳華·常紹溫 外 釋, 『海國圖志』, 岳麓書社, 1998.  
金奭準, 『紅藥樓詩初集』(『和國竹枝詞』), 임형택 편, 『閭巷文學叢書』 권5, 2007, 다른  
생각.  
金奭準, 『孝里齋逸集』, 天理大學校 天理圖書館.  
金正喜, 『阮堂全集』, 한국문집총간 301.  
俞萬柱, 『欽英』, 奎章閣資料總書,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7.  
李學逵, 『洛下生集』, 한국문집총간 290.  
許 傳, 『性齋集』, 한국문집총간 308.  
洪翰周, 『丙寅日史』,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DB).

### 2. 단행본

- 김명호, 『환재 박규수 연구』, 창비, 2008.  
김용태, 『19세기 조선 한시사의 탐색』, 돌베개, 2008.  
민병수, 『한국한시사』, 태학사, 1996.  
밀톤 W. 마이어, 김기태 역, 『동남아시아 입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1991.  
이광린, 『한국개화사연구』(개정 증보판), 일조각, 1982.  
이병길, 『로버트 모리슨』,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4.  
장효현, 『韓國 古典文學의 視角』,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0.  
짜우전환, 한지은 역, 『지리학의 창으로 보는 중국의 근대: 1815~1911년 중국으로  
전파된 서양지리 번역서』, 푸른역사, 2013.  
陳鼓應 注譯, 『莊子今注今譯』, 北京: 中華書局, 2014.  
愛漢者 等編, 黃時鑿 整理, 『東西洋考每月統紀傳』, 北京: 中華書局, 1997.  
Leonard, Jane Kate, *Wei Yuan and China's Rediscovery of the Maritime Worl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

3. 논문

- 김영죽, 「추재(秋齋) 조수삼(趙秀三)의 『외이죽지사(外夷竹枝詞)』 소고, 『민족문화사연구』 제36호, 민족문화사학회, 2008, 29~61면.
- , 「조선 후기 竹枝詞를 통해 본 18, 19세기 중인층 지식인의 他者인식, 『漢文學報』 제24집, 우리한문학회, 2011, 455~494면.
- , 「韓國 竹枝詞 資料 集成의 필요성과 의미-그 방법론을 검하여, 『漢文古典研究』 제40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20, 147~171면.
- 김윤조, 「實學派文學의 繼承樣相에 관한 研究-특히 北學派의 경우를 중심으로, 『大東漢文學』 제8집, 대동한문학회, 1996, 227~262면.
- 박혜민, 「조선후기 유럽에 대한 지리적 상상력-〈외이죽지사〉와 〈이역죽지사〉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제49집, 열상고전연구회, 2016, 347~393면.
- 서한식, 「金奭準과 『孝里齋筆記』에 대하여, 『漢文學報』 제21집, 우리한문학회, 2009, 473~497면.
- 설배환, 「18세기 조선 士人의 異域 인식-『欽英』의 『同文廣考』 옮겨 적기를 통한 고찰, 『한국문화』 제65집,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4, 135~189면.
- 신은경, 「秋齋 趙秀三의 『外夷竹枝詞』 연구, 『국제어문』 제42집, 국제어문학회, 2008, 163~201면.
- 신하윤, 「『竹枝詞』 연구를 위한 탐색, 『중어중문학』 제36집, 한국중어중문학회, 2005, 221~243면.
- , 「18세기 조선문인의 세계인식과 문학적 형상화: 秋齋 <外夷竹枝詞>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지』 제17집, 중국어문학회, 2005, 425~450면.
- 원재연, 「『海國圖志』 受容 前後의 禦洋論과 西洋認識: 李圭景(1788~1856)과 尹宗儀(1805~1886)를 중심으로, 『韓國思想史學』 제17집, 한국사상사학회, 2001, 395~433면.
- 유인선, 「인도네시아의 역사와 문화, 『아세아연구』 제32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89, 103~147면.
- 이민숙 외, 「[原典譯註] 『해국도지(海國圖志)』 권5: 동남아시아에 대한 기록[叙東南洋], 『중국소설연구회보』 제101호, 한국중국소설학회, 2017, 21~40면.
- 표가령, 「玉坡 申弼永의 『測上紀行絕句』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19th-century Chosŏn literati's literary imagination through  
 a reading of *Haiguo tuzhi*  
 - focusing on Shin Pilyeong's 'Haeguk jukjisa' -

Pyo, Ga-ryeong

19th Century scholar Shin Pilyeong(1810-1865), pen name Okpa, composed 'Haeguk jukjisa', a compilation of 62 jukjisa, after reading *Haiguo tuzhi* by contemporary bureaucrat and scholar Wei Yuan(1794-1857). The so-called 'Silhak'(pragmatism) scholars and administrators of the same period, the late Joseon era, used *Haiguo tuzhi* for the purpose of things like gathering information about foreign affairs, the denouncement of Catholicism, and devising naval defense measures. Shin Pilyeong, on the other hand, departing from the belief that knowledge of the West was critical given the shambolic state of China following the opium war, adopted it as the subject of literary figuration. This paper first examined the context surrounding Shin Pilyeong's reading of *Haiguo tuzhi* and his composition of 'Haegukjukjisa' as well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works. This paper recognized that, unlike foreign jukjisa('haewaejukjisa'), such as those composed by Cho Su-sam and Lee Yu-won, 'Haegukjukjisa' possesses a timely quality as its composition was prompted by a sense of crisis over international affairs. With this in mind, of the total of 62 jukjisa, this paper chose to focus on the jukjisa depicting the overseas state of affairs in Southeast Asia.

Shin Pilyeong divided the regions of Southeast Asia in accordance with Wei Yuan's intention behind the composition of *Haiguo tuzhi* and in jukjisa that dealt with regions like Singapore, Java Island and Penang Island, he vividly depicted the infiltration of Western powers with a critical voice. It was also an effective way for Joseon scholars to visualize these strange regions. This paper confirmed that Shin Pilyeong used unusual poetic expressions, such as foreign loanwords, to engage the reader's interest and allow the reader to visualize and indirectly experience the strange world of overseas regions.

keywords: Shin Pilyoung(申弼永), 『Haegukjukjisa(海國竹枝詞)』, Wei Yuan(魏源),  
*Haiguo tuzhi*(海國圖志), Jukjisa(竹枝詞), Haewaejukjisa(海外竹枝詞)

접수일자: 2021. 3. 31.

심사기간: 2021. 4. 1.~2021. 5. 10.

게재결정: 2021. 5. 10.